

의상 대여... 세트 제작... 극단 신문... 든든한 서포터즈 회원들

그들이 있어 연극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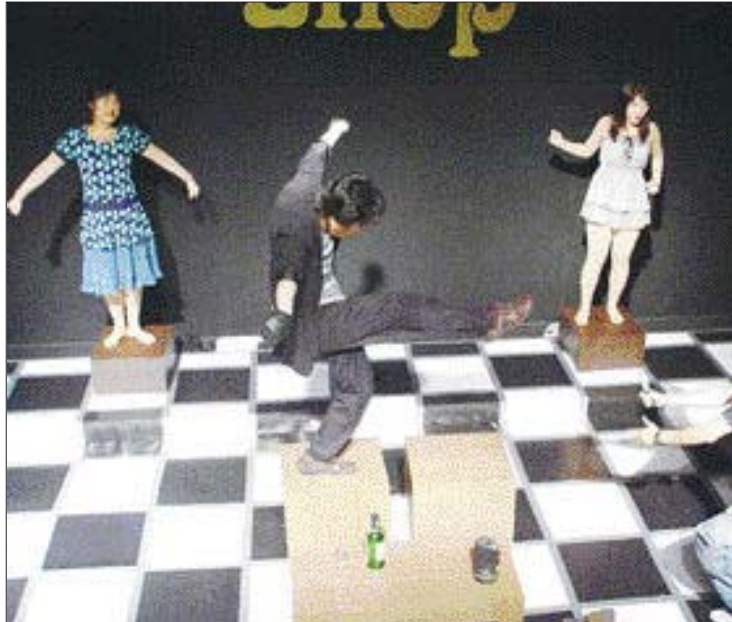
극단 '얼·아리'(cafe.daum.net/eolary)의 유쾌한 코미디 '마술가게' 공연이 열렸던 지난달 30일 문예정터 소극장에서는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공연에는 '얼·아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다수 참석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배우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광주 지역 각 극단의 회원들은 척박한 지역 연극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가는 연극인들의 든든한 응원군이다. 사실, 서울 등에 비하면 지역 극단의 회원들은 규모도 작고, 조직적이지는 않다. 또 자체 극장이나 연습실을 확보하고 있는 극단도 거의 없어 '수시로' 만남을 갖기는 어려운 상태.

하지만 연극을 아끼는 마음으로 동향 극단과 회원들은 지역 연극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회원들 의상 대여, 세트 제작 의상·무대 세트 등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지역 극단들에게 회원들은 작은 힘을 보탠다. 간호사복, 경찰복 등 특수 의상의 경우 회원들이 대여하거나 기증하는 사례가 많다. 씬크대 제작일을 하는 '얼·아리'의 한 회원은 단원들과 함께 직접 세트 제작에 나서기도 한다.

뒷풀이 자리에서 멋진 피아노 실



척박한 문화 환경 속에서도 연극을 아끼는 마음으로 똘똘한 극단과 회원들은 지역 연극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극단 '얼·아리'의 '마술가게' 공연모습.

력을 자랑했던 '푸른연극마을'의 한 회원은 극단의 차기 작품에 당당히 출연하기도 했다. 음료수 등 먹거리를 챙겨주고 각 극단의 연습실을 찾아오거나 삼겹살 파티를 열어 주는 회원들도 많다.

극단 '청춘'(cafe.daum.net/cctheater)은 부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 한다. 회원들과 영화를 보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을 나누기도 한다.

오랜 기간 자체 극장을 운영했던 '푸른연극마을'(cafe.daum.net/pyj2023)은 회원들만을 위한 공연을 찾아오거나 삼겹살 파티를 열어 주는 회원들도 많다.

극단 '청춘'(cafe.daum.net/cctheater)은 부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 한다. 회원들과 영화를 보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을 나누기도 한다. 자체 극장(문예정터)을 운영하는 극단 '진달래 피네'(www.pine-

play.com)는 최근 관객 회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극장 축제에서 선보인 'Love is' 공연 때부터 공연 안내, 공연 후 감사 인사 서비스 등을 시작한 '진달래 피네'는 정예 회원 300명을 확보할 예정. 특히 극단과 단원들의 소식을 전하는 '진달래 피네' 신문을 한달에 한차례씩 제작하기로 하고 오는 8월중 첫 신문을 발행한다.

'푸른연극마을'은 오는 8월 보성에서 열리는 공연예술축제 때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카페 회원과 1만원 이상 후원회원들로 200명 규모의 서포터즈도 꾸릴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광주에 다시 극장을 마련할 계획도 세워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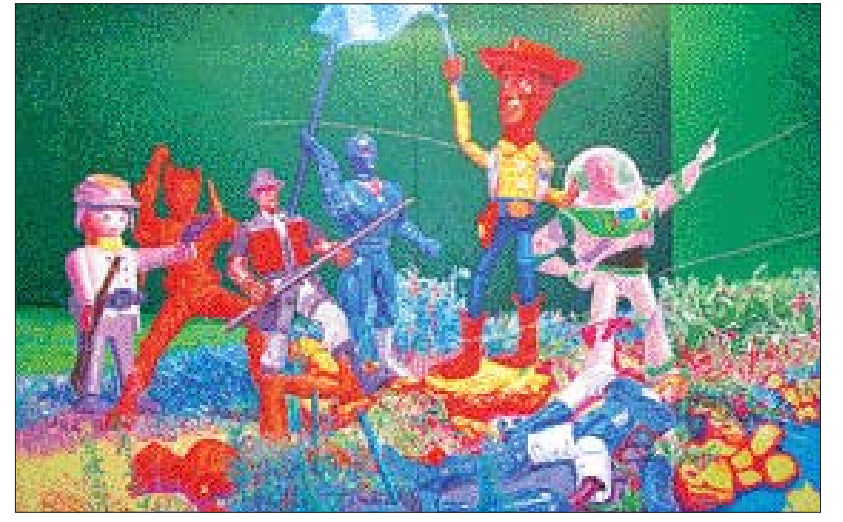
7월말 관객의 참여가 필수적인 '투맨쇼'를 무대에 올리는 '얼·아리'는 카페 회원들을 직접 참여시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푸른연극마을' 오성환 대표는 "극단에 애정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되는 존재가 좋은 모니터 요원"이라며 "작품에 대한 반응들이 금방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극단에게는 좋은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남웅 작 '국밥'



박병균 작 '자유를 이끄는 카우보이'

한국미술 이끄는 청년작가의 힘

하정웅청년작가초대 '빛2007'展 5일부터 한달간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서

광주시립미술관은 5일부터 8월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하정웅청년작가초대 '빛2007'전을 개최한다.

올해 선정된 초대전 참여작가는 윤남웅(광주·한국화), 박영균(경기·서양화), 차규선(대구·서양화), 문지웅(전북·서양화), 허문희(제주·판화) 등 5명.

이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에 2천700여점의 작품을 기증한 하정웅 명예관장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청년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화가 윤남웅씨는 서민들의 생활공간인 장터를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삶의 활력과 서민의 애환을 담은 작가다. 박영균씨는 미군기지 확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평택 대추리 연작을 발표하는 등 우리 사회와 현대

사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화가.

차규선씨는 캔버스에 물감을 덧칠하는 작업이 아니라 물감이 마르기에 굳어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감을 연출하고 있으며, 문지웅씨는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 악육강식의 사회구조를 작품에 담고 있는 예술가다.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문희씨는 개인적이고 여성적인 기풍을 통해 젊고 발랄한 상상력을 화폭에 담은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5일 오후 3시30분부터 열리는 개막식 행사는 지촌섬 시립교향악단 단무장과 신두항 시립극단 단무장이 연출을 맡아 관소리, 무용 등 다채로운 국악공연과 소프라노, 바이올린 연주 등으로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작년 국내 기업 메세나 금액 2.2% 증가 그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문화예술지원(메세나) 금액이 2.2% 증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영주)는 3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등 총 613개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총 109개사가 1천840억1천1만원의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 다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지원건수는 3천182건으로 전년대비 12.9% 늘었다. 다만, 이는 500대 기업만 조사한 전년대비 비해서도 2.2%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증가율은 전년 5.3%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협회회는 지난해 월드컵 마케팅폭에 기업 지원이 집중되고, 경제전망도 불투명해 지원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공기업과 신규 참여 기업의 지원에 힘입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현대중공업, 삼성테크노, 현대자동차 등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상위 20대 대기업의 지원액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한편 설문에 응한 기업의 59.6%는 사회공헌 전략으로 문화예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마케팅 전략(38.3%), 경영전략(1.8%) 등 순으로 답했다.

/연합뉴스

'영혼'의 화음

'아니마' 여성 앙상블 연주회 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아니마(Anima) 여성 앙상블(사진) 창단 연주회가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탈리아어로 '영혼'이라는 뜻을 그룹 이름으로 삼은 '아니마'는 클래식와 전통성을 지키면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함께 무대에 올린다.

이번 연주회 1부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갈라 콘서트로 꾸민다. 2부는 '포기와 베스' 중 '섬머타임',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마리아' '투나잇', 오페라 '제비'와 '리 발리'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이탈리아에서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모임을 결성한 소프라노 김명미·윤혜정·송아영·김지영, 안은유씨와 메조소프라노 조정희씨가 출연하며 테너 이상화, 바리톤 김기보씨가 찬조출연한다. 문의 010-6833-72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관록'의 연주

광주실버예술단 창단 공연 5일 광주공원 광장 야외무대

(사)광주실버연예예술단(사진·이하 실버예술단) 창단 공연이 5일 오후 5시 광주공원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광주연예협회와 창단한 실버예술단(단장 유방희)은 색소폰, 기타, 키보드 등으로 구성된 실버악단(15명)과 가수, 코미디, 무용 등을 선보일 단원 등 모두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고령자는 악단에서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는 임광중(80)씨며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는 송명식(77), 기타를 연주하는 김학선(69)씨 역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실버예술단은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모두 15차례 공연을 진행한다. 광주북구노인종합복지관(27일), 이일성로연(8월25일) 등의 시설과 풍암체육공원, 옛 전남도청 앞 등에서 무료로 공연을 가질 계획. 5일 열리는 창단 공연에는 코미디언 한무가 찬조출연한다. 문의 062-352-1080.

광주시향 신인음악회 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1회 신인음악회가 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임흥규 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각 음악대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선다.

출연자는 권미리(클라리넷), 권효진(소프라노), 박혜민

(피아노), 최교성(바리톤), 손수연(피아노)씨며 연주 곡목은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26', 슈만의 '피아노협주곡 가단조 작품 54', 생상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작품 22', 오페라 '가면무도회' 중 '너는 마음을 더럽히는 자'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이제야 웃을 수 있어!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악국사거리 ♥에매1544-0600

1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최고급관
2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3관	오션스 13 (12세)
4관	4.4.4 (18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러브애틀러블 (15세)/검은집 (18세)
7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 씨노이들 (18세)
8관	검은집 (18세)
9관	트랜스포머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화이트가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4.4.4 (18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5관	슈렉3 (전제) (18세)
6관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할토시향 영화시향 *에매-www.joycbs.com/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역면)

1관	오션스13 (12세)
2관	아린이전용관 열세살 수아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슈렉3 (전제) / 4.4.4 (18세)
6관	슈렉3 (전제) / 뜨거운 녀석들 (18세)
7관	트랜스포머 (12세)
8관	황진이 (15세)
9관	검은집 (18세)
10관	트랜스포머 (12세)

오늘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연결 뷔페 (1번 or 2번) -1번 or 2번 -1원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4.4.4 (18세)
2관	오션스13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7관	슈렉3 (12세)
8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8세)
9관	검은집 (18세)

*리바시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타임스퀘어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타임스퀘어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시네마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오션스13 (12세)
4관	검은집 (18세)
5관	4.4.4 (18세)
6관	슈렉3 (12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혼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